

2004학년도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듣기 대본

1. 이제 우리 나라의 전통 건축물에 대한 강연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은 석빙고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석빙고는 돌로 만든 빙고, 즉 얼음 창고인데, 우리 조상들은 겨울에 얼음을 모아 빙고에 저장해 두었다가 여름에 필요할 때 꺼내 썼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냉장고와 같습니다. 그런데 냉장고에는 얼음을 얼리는 기능과 저장하는 기능이 함께 있지만, 석빙고에는 저장 기능만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 석빙고는 전기도 필요 없습니다. 전기도 없이 한여름까지 얼음을 보관할 수 있었다는 게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석빙고의 전체적인 모습은 꼭 무덤같이 생겼습니다. 얼음을 저장해 두는 빙실은 그 안에 있는데, 바닥을 흙으로 다지거나 넓은 돌을 깔아 만들었습니다. 또 빙실의 바닥은 출입구 쪽이 높고 반대쪽이 낮은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가장자리에는 배수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얼음이 녹아 물이 생긴다 해도 물이 금방 밖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빙실 안에 물이 고이면 얼음이 빨리 녹으므로 배수 시설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빙실의 길이는 폭의 두 배 내지 네 배 정도 되며, 벽은 잘 다듬은 화강석을 쌓아 만들었습니다. 천장은 일정한 간격으로 무지개 모양의 아치를 이루고 그 빈 사이를 돌로 쌓거나 판판한 돌로 얹어 마감했습니다. 천장은 전체가 아니라 부분 부분이 아치형이라는 게 일반 구름다리나 성문과는 다른 점입니다. 또 규모가 큰 석빙고에는 천장에 구멍이 나 있으며, 빙실의 맨 바깥쪽에는 작은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석빙고의 지붕은 잔디로 덮어 외부의 복사열을 차단했습니다.

2. 이번에는 토론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김 선생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요즘 많은 여성들이 외모에 집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많은 돈을 소비하기도 하구요. 비싼 성형 수술을 받기 위해 신용카드를 마구 사용하다가 그 빚을 갚지 못하고 결국 신용 불량자가 된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아주 병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선생님께서서는 여성들이 내면의 아름다움보다는 화려한 외모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할 때, 능력 있는 사람보다는 외모가 빼어난 사람이 채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력보다는 외모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셈이지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텔레비전이나 신문·잡지 등의 광고에는 한결같이 미인들이 넘쳐납니다. 또 성형 미인도 미인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오늘날의 세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외모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은 온통 예쁜 여자들만 있고, 또 그런 사람들만 제대로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여성이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겠습니까? 빚을 내서라도 성형 수술을 받는 것은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점을 고려하지 못한 말씀은 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이번에는 인터뷰 내용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할아버지(65세) : 우리 때는 그런 것이 없었어. 마음이 있어도 그냥 먼발치서 바라보는 것만으로 끝나고 말았지.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때와는 달라. 무슨 데이다 하면서 초콜릿, 사탕 할 것 없이 서로 주고받더라구. 어떤 때는 너무 노골적이어서 못마땅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처럼 멋없이 사는 건 아니다 싶어 좋게 보이기도 해. 때로는 나도 젊은이들처럼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늙은 사람이 주책없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못하고 있지.

직장 여성(27세) : 밸런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요? 애인한테는 꼬박꼬박 챙겨 주고 또 그만큼 받아요. 별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그런 날은 특별하게 직장 상사나 동료들에게도 선물을 해요. 직장 동료 중에는 특별히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날 공개적으로 선물을 줘서 속마음을 보이면 금방 그 반응이 나타나요. 굳이 남자가 주는 날이니, 여자가 주는 날이니 하는 걸 따질 필요는 없어요.

주부(45세) : 딸이 밸런타인데이에 남자 친구에게 초콜릿을 선물한다며 돈을 달라고 하는데, 그 액수가 만만치 않더라구요. 그래서 자기 돈으로 사지도 못하면서 그런 걸 뭐 하러 꼬박꼬박 챙기느냐며 잔소리를 줬 했지요. 그런 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뭔가 선물을 주면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한다는 것은 좋지만, 그걸 꼭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남학생(15세) : 밸런타인데이는 주로 방학 때라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에서는 화이트데이나 빼빼로데이가 더 난리예요. 저처럼 여자 친구가 없는 사람은 시샘이 날 정도로요. 저도 속으로 좋아하는 여애가 있는데 다음에는 꼭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조금 내성적인 성격이라 말도 못 꺼내고 있었거든요.

4. 이번에는 한 학생의 발표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전면적으로 자유를 허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유의 제한이 불가피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몇 가지 사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길을 건널 때 ‘교통 신호’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교통 질서’가 혼란해질 수밖에 없어 사람들 모두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러한 자유의 제한은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이로 보아 ‘사회 질서 유지’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을 마련해 놓고 일반인의 주차를 제한하는 것은 또 다른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장애인만을 위해 특별한 주차 공간을 마련해야 할까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그런 걸까요? 저는 이것이 사회적 약자를 특별히 보호하려고 하는 타당한 조치라고 봅니다. 이로 보아 ‘사회적 약자 보호’ 또한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사회 질서 유지’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에도 한계가 있음을 알고 기꺼이 감수하는 자세 또한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5~6] 이번에는 ‘개인 정보 유출’ 문제를 다룬 방송 대담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 : 사회의 정보화가 가속화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개인 정보 유출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영국의 철학자 벤담이 설계한 ‘원형 감옥’을 떠올리게 됩니다. 원형 감옥은 중앙에 있는 간수의 감시탑을 중심으로, 원형 건물의 원주를 따라 죄수의 방이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수의 감시탑은 항상 어둡게 하고, 죄수의 방은 항상 밝게 했기 때문에, 죄수는 보이지 않는 간수에게 자신의 일상을 낱알이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조금 극단적인 견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날 우리 사회는 벤담의 원형 감옥처럼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 의해 개인 정보가 유출되고 그에게 감시당하는 사회가 되어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프랑스의 한 철학자는 개인 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현대 사회를 ‘통제 사회’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 연구해 왔던 미국의 한 엔지니어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 프라이버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개인 정보를 자신이 완벽하게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마련해 왔습니다.

여 : 저는 우리 자신의 정보 관리에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편리함을 위해 자신의 개인 정보를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전자 메일과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무료로 사용하기 위해 개인의 신상 정보를 기꺼이 제공합니다. 어떤 사람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자신의 사진은 물론 자세한 신상 정보를 올립니다. 또는 전자 결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당첨될 확률도 별로 없는 경품 때문에 성명, 주소는 물론 전화번호까지 너무도 쉽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유출시키고 있는 셈이지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기 몫인데도 말입니다. 특히 신용 정보 등 중요한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악용될 경우는 돌이키기 힘든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스팸 메일을 지우면서 화만 낼 것이 아니라, 자신의 메일 주소를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